

# “오월 연대...46년 전 그날의 경적 다시 울렸다”

## 5·18 46주년...민주기사의 날

“1980년 5월, 불의에 맞선 선배 기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섰던 ‘민주기사’들의 뜻을 기리는 차량 행진이 20일 광주 도심에서 재현됐다.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후문에서는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과 차량 행진 행사가 열렸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택시 기사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46년 전 오월 항쟁의 현장을 되새겼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오월 영령 및 민주열사 묵념을 시작으로 기념사, 민주기사상 수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차량 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민주기사는 정승욱 전국민주택시 인천지역본부 위원장, 김길범 전국민주택시 강원지역본부장, 함명록 전국민주택시 광주지역본부 은택시 위원장이 수상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오월 정신 계승하자”, “투쟁”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사회자가 “경적과 조명등은 단순한 소리라 빛이 아닌 멈추지 않는 역사”라고 선언하자 기사들은 차량에 올라 당시 항쟁



20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앞에서 열린 제46주년 민주기사의 날 기념식에서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 조합원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택시 등 30여대, 무등경기장~옛 전남도청 4.5km 행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행진 재현에 나섰다.

택시기를 단 초록색·노란색 포니 택시 2대가 선두에 섰고, 뒤따른 차량들은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 채 무등경기장부터 광주역, 급남로5가를 지나 옛 전남도청까지 4.5km 구간을 이동했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손을 흔들거나 휴

대전화로 행진 장면을 기록했다.

이번 행진은 1980년 5월20일 택시와 버스 기사들이 차량 시위를 벌이며 시민상등과 전조등을 켜 채 무등경기장부터 광주역, 급남로5가를 지나 옛 전남도청까지 4.5km 구간을 이동했다.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손을 흔들거나 휴

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항쟁 참여를 이끌었다.

장훈명 5·18광주민중항쟁민주기사동지회장(73)은 “당시 기사들은 계엄군에게 다친 학생과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실어 날랐다”며 “1980년 5월의 참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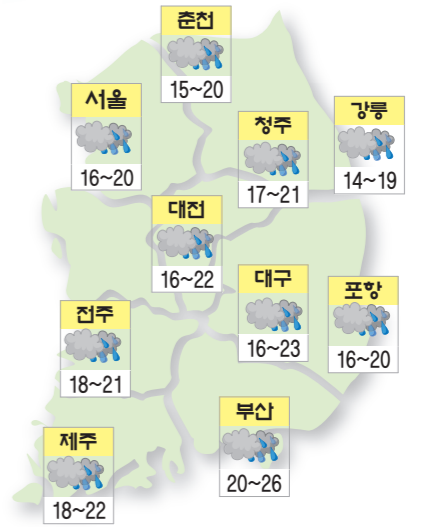
이어 “민주기사동지회 창립 기념식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분이 민중항쟁의 주인공’이라고 말해 큰 자부심을 느꼈다”며 “1997년 이후 매년 이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도 “1980년 5월20일 민주기사는 신군부의 폭압에 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도청으로 향했다”며 “그들의 의거는 광주 공동체의 연대와 저항 정신을 하나로 묶어낸 오월 정신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민주기사가 보여준 정의와 연대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다.

## 오늘의 날씨

Weather forecast table showing temperature ranges for different times of the day: 05:25, 09:34, 19:34, and a range of 16-20.



A table listing weather forecasts for specific cities: 광주 (16~21), 목포 (16~19), 여수 (18~23), 순천 (18-23), 구례 (17~22), 진남 (16~21), 진도 (19~25), 진안 (16~20), 고성 (16~21), 진도 (15~19).

A table showing detailed weather forecasts for 목포 (Mokpo) and 여수 (Yeosu),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 화순파프리카쌀국수, 김지숙 화순군의원 고발

농업회사법인 (주)화순파프리카쌀국수는 20일 김지숙 화순군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후 화순을 경로당과 상가 등에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를 자신의 처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업체가 문제 삼은 것은 김 의원이 “화순군이 5년 동안 2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화순쌀국수만 구입했고, 전관예우나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유례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기업과 제품 이

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또 “화순쌀국수를 거대한 특혜와 로비의 산물처럼 몰아가며 기업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까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그 결과 회사와 지역 행적 모두 전국적인 논란 속에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김 의원 발언 이후 매출 감소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 측은 “허위 주장으로 기업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매년 7000만원가량 적자가 누적돼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순쌀국수는 특허 3건을 보유하고 있어 수익계약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추된 기업과 지역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 광주·전남 암 발생률 증가...환자 2만명 육박

### 광주 ‘갑상선암’·전남 ‘폐암’...생존율 각각 75.8%·67.7%

광주·전남지역 암 발생률이 각각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갑상선암이, 전남에서는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광주·전남지역 암 등록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새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총 1만9654명(광주 7453명·전남 1만220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966명) 대비 688명 증가한 것으로, 광주와 전남 모두 3.6%씩 늘었다. 성별로는 남자 418명, 여자 270

명으로, 남성의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에서는 갑상선암(1033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폐암(813명), 대장암(789명), 위암(741명), 유방암(702명) 순이었다. 전남은 폐암(1524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암(1298명), 대장암(1278명), 갑상선암(1179명), 전립선암(1035명) 순이었다. 광주에서는 폐암이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반면 유방암과 위암, 췌장암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전립선암이 전년보다

12.6%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폐암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폐암은 여전히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성은 확인한 증가세를 보였다.

증감 추세를 보면 광주는 1999년 이후 전체 암 발생률이 연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암 발생률은 광주와 전남 모두 각각 연평균 2%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생존율도 꾸준히 향상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광주 75.8%, 전남 67.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2010년 대비 각각 6.5%p, 7.8%p 상승한 수치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동구, 내달 13~14일 증심사에서 ‘무등생각’ 개최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실’과 ‘사유’를 회복하는 디지털 디톡스형 인문축제가 광주 무등산에서 열린다. 동구는 오는 6월 13~14일 무등산 증심사지구 일원에서 제4회 무등산 인문축제

‘무등생각’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디지털 환경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시 화면에서 벗어나 자연과 감각,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안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

## 광주 청소년 동아리 축제 ‘노리터’ 열린다

### 23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축제 ‘노리터’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오는 23일 센터 앞마당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 ‘노

리터’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동아리연합회가 주도해 마련한 행사로, 각 동아리가 활동 과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에는 피규어·목공·스포츠·베이

킹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타로를 본 뒤 쿠키를 찍는 체험을 비롯해 비건 디저트를 맛보고 시식평 남기기, 종이백 자원순환 알아보기, 키링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청소년 밴드 공연도 펼쳐진다. 청소년 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장에는 피규어·목공·스포츠·베이

## ‘비밀수사’라며 모텔 유인...진화하는 피싱

### 광주 1~4월 95건 발생·214명 검거...피해액 95억

### 공공기관 사칭·셀프감금 등 공포 심리 조작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며 시민 일상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사칭, 악성 앱 설치, 심리적 고립 유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1~4월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95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2건과 비교하면 47.8% 감소한 수치로, 피해 금액 역시 114억원에서 95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피싱 의심 전화번호 등 범행 수단 1985건을 차단했고, 61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28억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피싱범 214명도 검거했다.

다만 피해 규모와 발생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범죄 수법은 더욱 진화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심리 조작형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20대 회사원이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 스스로 몸을 숨긴 채 자산 검사를 받는 이른바 ‘셀프감금’ 상태에 놓였다가 경찰 설득으로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막았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돼 자산 검사를 해야 한다”, “임시 보호관할 형식으로 비밀 수사를 진행하겠다”, “가족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사람 없는 곳이나 모텔로 이동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60대 여성이 금융권 직원을

사칭한 인물과 장시간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간호사의 신고로 8000만원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또 광산구에서는 편의점 직원이 대출을 이유로 수심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는 손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병관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해의 거점 조직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법을 만들어내고 있어 시민 개개인의 경계심과 주변의 신속한 신고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경하지 않은 카드·범행 등기가 배송 중이라는 안내 문자 △출처 불명의 링크(URL) 접속 요구 △금감원·경찰 등을 사칭하며 비밀 수사를 이유로 모텔 투숙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꼽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감찰·금감원·경찰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자금 이체나 비밀 속소 이동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가까운 경찰관서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